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빛나는 ‘담양대나무축제’가 53만명이 찾은 가운데 지난 6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담양군 제공

53만명이 반한 ‘담양대나무축제’ 대성황

카누체험·물고기 잡기·죽로차 시음회 등 체험행사 풍성
뽕부 프리포즈 등 夜 ‘낭만 가득’...국내 명품축제 ‘우뚝’

53만명이 찾은 담양대나무축제가 6일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화려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축제는 ‘대숲에 물들다, 담양에 반하다’라는 주제에 맞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5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 손색이 없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축제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53만여명이 다녀가며 담양대나무축제의 위상을 증명했다. 축제 기간 강한 햇볕이 파고드는 초여

름 날씨에도 담양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은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의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즐기고 ‘한국관광 100선’ 죽녹원의 시원한 산책길을 걸으며 황금연휴를 즐겼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한 추억의 죽물시장 가는길 재현 퍼레이드와 대숲 푸른음악회로 달아오른 축제장에서는 대나무 카누 체험, 대소쿠리 물고기잡기, 대나무 어린이놀이터, 대나무 족욕 체험 등 대나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체험 장을 준비해 관광객을 맞이했다.

특히 전통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죽로차 시음회는 외국인 관광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관광객들은 대나무향 가득한 죽녹원을 걸으며 죽림욕을 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싱그러운 봄을 마음껏 즐기고 담양만의 별미인 죽순요리와 대통밥 등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푸진한 먹거리도 함께했다. 무엇보다 올해 대나무축제는 매력적인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밤에도 즐길 것들이 가득한 ‘체류형 축제’로 변모했다. 축제장 곳곳에 펼쳐진 경관조명과 죽녹원 앞 플라타너스 ‘별빛길’, ‘뽕부 프리포즈’를 운영해 야간에도 축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미디어파

사드 프로그램, ‘뽕부 프리포즈’는 축제 기간 매일 밤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축제 기간 열린 ‘2019대나무 문화산업전’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품과 건강식품, 미용제품, 인테리어 제품 및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품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뽕부포를 송환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한 폐막식으로 축제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 밖에도 관광객들은 축제가 열리는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보이는 파이프오르간의 선율이 함께하는 문예카페 ‘담빛예술창고’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메타프로방스 등을 방문하며 담양 곳곳에서 ‘소확행’을 즐겼다. /담양=정승균기자

균형발전박람회 성공·내년 국비확보 쟁점음

허석 순천시장, 균발위·국회·서울국토청 등 방문
지역 주요 현안사업 지원 요청...각 기관 협력 약속

순천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성공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순천시는 8일 “허석 순천시장이 9월 순천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성공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서울지하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위별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 중 주요 지역현안인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2020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 ▲호남권직업체험센터(순천만 잡월드) 건립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도사-해룡간 국도2호선 우회도로 국가도로계획 반영 등을 각각 건의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받았다. 또한 서울국토관리청장실을 방문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에서 밝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자문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순천

유치를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순천시의 경우 국비 확보가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보다 신속하고 발로 뛰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세종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교부세 확보 건의,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호남권직업체험센터(순천만 잡월드) 건립비 및 운영비를 건의하고 오후에는 남도포럼에 참석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남정민기자

장흥군, 농업인대학·아카데미 현장실습

자연농자재·전통된장 만들기 등 인제 육성 앞장

장흥군은 최근 농업인대학 친환경 유기농업과정 교육생 30명과 농업아카데미 농산물 가공과정 교육생 37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실습 교육은 보성군에 위치한 전남도 친환경농업교육관 ‘우리원’과 장흥군 안양면 기산마을 ‘장흥식품’에서 열렸다. 유기농 명인 전양순 대표의 특강을 비롯해 자연농자재 만들기 실습 및 전통된장 명인 천정자 대표의 기술 전수로 전통 된장 만들기 실습이 진행됐다. 장흥군은 올해 11월까지 22회 농업인대학 친환경 유기농업과정과 16회 농업아카데미 농산물 가공과정 운영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조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유기농업과정은 유기농업자재 만들기, 친환경 토양 및 병해충 관리, 수도작·밭작물·과수 등의 친환경 재배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농산물 가공과정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발효식품 및 음료 제조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농산물 포장디자인·식품위생법 등 상품 아이템 발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영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문이론교육은 물론,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해 농가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실용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흥=고병근기자

여수 ‘우리동네 청춘버스킹’ 11일 개막

5개월간 여문문화의거리 등 5곳

여수시 신도심 거리문화공연인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이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수시는 8일 “오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서동, 웅천, 전소, 소호동 일원에서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여수시는 공연 장소를 지역별 특색에 맞춰 5개 구역으로 나눴다. 여문문화의 거리 1·2는 청년존과 7080존, 웅천상가는 패밀리존, 전소공원은 오디션존, 소호동동다리는 연인존으로 구분된다. 청년존에서는 청소년 댄스,

밴드공연 등이 열리고 7080존은 밴드, 통기타 공연 등이 펼쳐진다. 패밀리존은 미술, 어쿠스틱 공연, 오디션존은 지역 버스커 오디션 공연, 연인존은 색소폰, 어쿠스틱 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 ‘우리동네 청춘버스킹’ 개막식은 11일 오후 7시 30분 여문문화의 거리에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는 심어송라이터 윤정현, 조하, 밴드 해상화, 댄스팀 포커즌, 해인밴드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람객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재 발굴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성기자

화순, ‘지원 151번’ 버스→228번으로 변경

18일부터 운행...노선 동일

화순군은 8일 “오는 18일부터 화순전남대병원을 거쳐 남면 사령리까지 운행하는 ‘지원 151번’ 광주 시내버스가 228번으로 번호를 변경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번호 변경은 5·18민주화운동(광주)과 2·28민주화운동(대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영호남의 화합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228번은 기존 151번과 같은 노선을 운행한다. 광주 주남마을을 지나 화순공공도서관 입구 광덕지구 화순전남대병원 이 종점인 노선과 동면농공단지 동면구

암 남면사무소 등을 경유하는 노선을 하루 70여차례 운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18일부터 운행하는 228번 시내버스의 운행경로는 기존 151번과 노선 변경이 없다”며 “5·18민주화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2·28민주화운동은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항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으로 4·19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광주 시와 대구시 간 연대(달빛동맹)를 강화하자는 의지도 담겼다. /화순=이병철기자

오피스텔 [급 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올수리 ,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 시세 1억3천
- 급매 8천400만 (웅3천만)

☎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뒤편 1분 (코너)
- 1층 (상가)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웅2억5천 ,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 교육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 ② 실전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적)
- ③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 특별반) → 매주 개강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1.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 2. 광산구 신기동 (원룸빌딩) (토 110평, 건 171평)
▶ 감정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 3.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 4. 북구 용봉동 (다기구원룸) (토 80평, 건 165평)
▶ 감정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 5.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감정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